천국을 믿어도 죽음이 두려운 이유

(느헤미야 6:1~19)

1.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 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2.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3.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4.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5.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6.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8.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9.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천국을 믿어도 죽음이 두려운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천국을 믿어도 죽음이 두려운 이유’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있습니다. 최근호에 “종교, 뇌, 행동”이라는 이름의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보고를 기사화 했습니다. 주제는 사후세계를 믿는 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갖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관련해서 사후세계를 믿는 종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더 나은 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을 특별히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며,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1년부터 2014년까지 나온 죽음의 두려움과 종교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 106편을 정밀분석하여 나온 결과인데 전 세계의 26,000명을 상대로 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의 논문에서 종교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영국과 미국과 호주와 뉴질랜드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연구를 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좀 부끄러워집니다. 저 자신을 보아도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고3학생의 대학입시와 비슷합니다. 9월에 수시전형으로 서울대 법대에 합격한 학생이라면 이듬해 2월의 고등학교 졸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식적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우리는 흔히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락보다도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누구나 천국의 복락이 더 크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없어질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없어질 세상에서의 복락이라고 해봐야 돈이나 무병장수나 인기나 권력 등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의 복락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고3학생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면 졸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서울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궁극적으로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졸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천국의 복락이 어마어마한 것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면서도 죽음을 싫어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내 생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들여다본다면, 일시에 다 제거하지는 못할지라도 점차적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이 대치하는 장면을 떠올림으로서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장군과 장병들의 손에 들렸던 무기는 다윗의 물맷돌보다 월등했습니다. 사울 왕이나 그 휘하의 부하들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들이었고 다윗은 15세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모든 장점들이 단 하나의 이유에 의해 무력화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골리앗 때문은 아닙니다. 다윗도 똑같이 골리앗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으로 인해 야기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모든 가능성과 장점과 탁월함이 전부 휴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쫓겨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더 큰 낭패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생길 때에 두려움에 쫓기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두려움 자체를 이겨내야만 합니다.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다면 골리앗을 상대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서 두려움부터 없애야만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골리앗을 보면 다윗이 보았던 골리앗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게 돈이 없어서 두려움이 생겼다면 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해 생긴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움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두려움이 왜 생기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느헤미야가 시작한 성벽 재건이 완성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모든 벽이 완성이 되고 문만 달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과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와 위협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제는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기보다는 유다 사회를 와해시킬 수 있는 핵심적 공격 포인트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이방의 왕들이 모여서 느헤미야를 오노평지로 불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네 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다섯 번째에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을 구실삼아 느헤미야를 부르지만 또한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다 사회 내부의 인물인 느헤미야의 측근 스마야 제사장을 뇌물로 매수하였습니다. 스마야 제사장이 두문불출해서 느헤미야가 찾아가자 스마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장하여 암살당할 것이니 지금 당장 성전에 숨으라는 말을 합니다. 본래 성소에는 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느헤미야에게 율법을 어기게 하여 유다 사람들 내부로부터 이간질을 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율법을 기억함으로 모든 유혹을 뿌리칩니다.
이를 두고 9절에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고 하고, 13~14절에서도 매수당한 스마야를 두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댜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또한 19절에서도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두렵게 하고자 했다'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벽 쌓기의 마지막 단계가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만 달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벽 쌓기의 완성은 두려움을 극복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곧 육체 연관성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 연관성은 내 육체로 인해서 맺게 되는 관계들의 총합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족도 있고 돈과 권력 사물들에 대한 관계도 생겨나며 이런저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벽 쌓기는 이러한 모든 육체 연관성에 대해서 단절하는 것이고, 육체의 연관성으로부터 생겨난 관계로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움과의 연관성이 생겨나는데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두려워 할 수도 있고 자녀가 잘못 될까 승진을 못할까 두려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 때문에 두렵든지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마음의 공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없겠다는 위기감을 느낄 때에 두려움이 생기며 두려움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육체 연관성 안에서 마음의 공백을 채워서 만족하며 기뻐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육체 연관성은 자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이 있음을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도 믿지만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육체 연관성으로 마음을 채우려는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공백을 천국으로 채우라고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을 천국으로 채우지 않는 자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돈으로 채우고 싶었고 건강으로 채우고 형통으로 채우고 싶었던 것처럼 천국으로 채우려 했고 천국 채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천국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으로 채워진 적이 없다면 곧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졸업한 다음에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다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고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했는데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천국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돌로 찍혀서 죽는 중에도 두려움을 못 느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기 전에 천국을 가진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의미는 지금 가지라고 존재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을 가진 자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육체 연관성과 관계된 것을 일평생 쫓아다니다가 입으로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마음의 공백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살아온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핵심은 곧 성벽을 쌓는 것인데, 살아있지만 육체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것은 곧 육체로 인해 만날 수 있는 것들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지 않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벽 건축의 마지막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혹시 세상을 등지고 나면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을 하늘로 채우는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늘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을 채우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잃을까 생겼던 두려움을 하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하늘을 향한 기대와 희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의 십자가 복음 신앙은 완성 단계에 도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완성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또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곧 날마다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미끄러지기 쉽지만 도달해야 할 그 단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늘로 채워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함을 알 때에 벽 쌓기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일순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며, 일순간에 육체 연관성에 대한 벽 쌓기를 하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십니다. 돈 많이 벌어서 생기는 평안, 직장이 안정되어서 생기는 평안, 몸이 건강해서 생기는 평안,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가서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깨지지 않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벽을 쌓을 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의 두려움을 십자가 생활화로 극복하시고 희망과 기대로 하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조차도 하늘나라가 임하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하므로 세상에 대해 죽는 벽을 쌓을 때에, 세상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마지막 단계의 두려움을 극복함으로서 약속된 복음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